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 육계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 편집부

육계 계열화 사업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양계협회가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한 문제점과 설문조사를 통한 계열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1. 양계농가의 주장

- 병아리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사료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계절이나 때에 따라 다르다.
- 위탁 사육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변경 시에 회사의 일방 통보가 많다.
- 연료비, 약품비, 기타 사육 경비가 충분하지 않다.
- 지역 소장 제도에 문제가 많고 불만이다.
- 사육 수수료 평가 방법에서 상대평가방식이 불만이다.
- 사육비 문제나 병아리 폐사 등으로 불만이 생길 때 중재가 쉽지 않고 농가가 불리하다.
- 계약서대로 입추 회전수가 지켜지지 않거나

나, 출하 일령을 업체에서 특히 지역소장들이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조절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 2. 계열업체의 주장

- 계육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수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 매년 비용증가분을 판매가에 적용받지 못하는 시장으로 도산하는 계열화업체가 매년 발생한다.
- 농가/회사 간의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 질병, 원재료(병아리, 사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
-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생계 가격과 도계육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 농장 시설 현대화가 가속화 되어야 한다.
  - 계사 신축이 어렵고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부족하다.
  - 우수 농가 확보가 중요하며 사육원기가 낮아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 농가들의 계열화 업체 간 이동이 빈번하다.
- 계절적(성수기/비성수기) 물량 변동폭 심

## 육계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 화에 따른 계열농가의 운용이 곤란하다.
  - AI 발생 시 소비량이 급감한다.
  - 육계 과잉 생산 시 가격하락 및 조절 능력이 약하다.
  - 통닭에서 부분육과 절단육으로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 대형 유통점 및 프랜차이즈 등과 낮은 가격 교섭력에 문제가 있다
- 도체의 품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포장 유통 의무화 이후 문제가 증가했다.
  - 가공 공장의 2차 가공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 삼계탕 및 계육수출 개척이 부진하다.
  - 교역 상대국 수입위생 검역조건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각자 이해관계에 의한 의견 불일치에 대해 관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
- 농가는 업체에 대한 피해의식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상호 간에 필요하다.

### 3. 본 연구원에서 요약한 문제점

- 법률적 근거의 미흡

- 계열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미흡하며 농산물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 협약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들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과 같은 수준의 유통협약 체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 축산물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 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의 자조금 분담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미흡하다. 계열주체와 계열농가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민사소송 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 사육 농가와 계열화 업체 간의 갈등
  - 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의 계약이 상대적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계약 자체의 문제와 계약이행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는 등 갈등해소방안이 미흡하다.
- 도계육 판매의 구조적 가격결정 체계
  -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도계육 가격결정이 생계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계육도 매시장 개선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다.
- 원자재 (명아리, 사료) 품질 불만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 육계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 농가의 수익에 직결되는 사료 요구율, 병아리의 폐사율 개선 등 생산지수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 ○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 계사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는 질병, 위생안전,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보온덮개 등 계사사육시설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 부족으로 계사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방법의 개선이 요망된다.

### ○ 종계, 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 종계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계항목의 부족, 통계자체에 대한 신뢰와 통계 공표기관 등에 대한 문제로 업계의 사업추진과 정부정책수립에 애로가 많다.

## 4. 총괄적 평가

- 계열화 사업이 육계산업에 미친 영향, 육계사육농가의 경영실태, 계열업체의 경영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계열업체가 수급에 의한 도계육 가격변화

의 위험을 완충시켜주었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 타 축종에 비해 농가호수와 사육수수 변화율이 적었고

- 종계, 부화, 도계, 가공, 수송 및 유통의 계열화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부분육판매의 확대로 부위별 차별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양프로그램과 방역프로그램을 사육농가에 제공하고 꾸준히 개선하여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 규모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시설현대화가 진전되어 보온덮개로 사육하던 일시적인 산업이 항구적 사업으로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 계열업체는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단위당 수익은 줄고 규모화를 통해서 총 수익은 증대되었다. 부채비율이 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육계 산업은 계열화 사업으로 농가와 업체가 함께 성장하여 자급률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본다. 향후 타 축종의 경우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열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 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